

WEBVTT

00:00:11.506 --> 00:00:14.992  
이번 시간에는 일기 쓰기에 대해서  
알아볼게요.

00:00:15.017 --> 00:00:20.475  
일기,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떻게 보면  
가장 처음에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

00:00:20.500 --> 00:00:22.671  
일기 쓰기가 아닌가 싶어요.

00:00:22.696 --> 00:00:25.982  
그래서 일기를 통해서  
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.

00:00:26.007 --> 00:00:33.244  
그런데 이 일기 쓰기가 조금  
어려운 면도 있다고 봅니다.

00:00:34.037 --> 00:00:37.730  
여러분, 어떠세요?  
일기 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.

00:00:38.443 --> 00:00:42.405  
특히 방학 때 이런 때는  
일기를 매일 쓰지 않고

00:00:42.430 --> 00:00:47.075  
몰아서 나중에 방학 끝나기 전  
일주일 혹은 3일,

00:00:47.100 --> 00:00:50.900  
심지어는 전날에 막 한 달 분량을  
쓰는 경우도 있잖아요.

00:00:51.200 --> 00:00:55.181  
이건 글쓰기가  
힘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.

00:00:55.206 --> 00:00:58.355  
또 규칙적인 생활을  
안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.

00:00:58.685 --> 00:01:02.485  
일기 쓰는 거 자체가  
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.

00:01:02.510 --> 00:01:05.141  
여러분이 일기를 몰아서 쓸 때

00:01:05.166 --> 00:01:07.651  
특히 처음 어려운 점이  
더 크다고 생각해요.

00:01:07.676 --> 00:01:10.024  
왜냐하면 어떨까요?

00:01:10.145 --> 00:01:17.881

일기 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하기 때문이 아닐까요?

00:01:19.144 --> 00:01:21.671  
성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.

00:01:21.696 --> 00:01:25.496  
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 
놀이도 거의 비슷하고요.

00:01:25.521 --> 00:01:28.472  
또 방학하게 되면 늘 하는 일  
다 비슷해요.

00:01:28.497 --> 00:01:31.716  
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 학원  
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

00:01:31.741 --> 00:01:39.186  
친구 만나서 노는 것도 소재 자체가  
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나 싶어요.

00:01:39.586 --> 00:01:41.567  
그러니까 일기를 쓰려면,

00:01:41.592 --> 00:01:44.776  
우리가 글쓰기를 하려면  
특히 글감이 중요한데

00:01:44.801 --> 00:01:49.151  
일기를 쓸 때 똑같은 일이  
반복된다는 것은

00:01:49.176 --> 00:01:51.946  
소재가 없다는 것과 똑같거든요.

00:01:51.971 --> 00:01:53.623  
글감이 부족한 거예요.

00:01:53.896 --> 00:01:55.885  
그러니까 우리가 일기 쓰기가  
어려운 이유는

00:01:55.910 --> 00:01:59.546  
글감, 소재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 
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.

00:01:59.571 --> 00:02:01.520  
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

00:02:01.545 --> 00:02:03.415  
어떻게 하면 소재를  
다양하게 할 것인지

00:02:03.440 --> 00:02:05.200  
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.

00:02:05.403 --> 00:02:11.569  
또 하나는 일기를 쓸 때 어떻게  
써야 하는지도 문제인 것 같아요.

00:02:11.948 --> 00:02:16.941  
글의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.

00:02:16.966 --> 00:02:22.222  
글의 구조는 보통  
서론-본론-결론이라고 하기도 하고

00:02:22.247 --> 00:02:26.664  
때로는 기승전결  
이런 구조가 있잖아요.

00:02:26.689 --> 00:02:29.937  
그런데 그 외에는 구조가 없어요.

00:02:29.962 --> 00:02:31.976  
두괄식, 미괄식 이런 것도 있지만

00:02:32.001 --> 00:02:34.605  
지금 얘기하는 것과  
약간 성격이 다르고요.

00:02:35.406 --> 00:02:37.839  
우리가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

00:02:38.142 --> 00:02:40.736  
서론-본론-결론으로  
쓰는 사람은 없잖아요.

00:02:41.025 --> 00:02:43.772  
또 일기를 쓰는데  
기승전결로 쓰나요?

00:02:43.797 --> 00:02:45.359  
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.

00:02:45.991 --> 00:02:50.880  
이 글의 구조는 일종의  
형식이란 말이에요.

00:02:50.905 --> 00:02:54.997  
형식이어서 예를 들면  
우리가 네모난 두부를 만든다고 하면

00:02:55.022 --> 00:02:58.350  
네모난 틀에다 콩을 집어넣으면

00:02:58.375 --> 00:03:01.691  
네모난 두부 형태가  
나온다는 거잖아요.

00:03:01.716 --> 00:03:06.329  
그러니까 이 틀, 형식도  
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.

00:03:06.354 --> 00:03:10.434  
그런데 일기 쓰기에는  
글의 구조가 없어요.

00:03:10.459 --> 00:03:12.038  
그러니까 힘들어요.

00:03:12.063 --> 00:03:14.848

일기 쓸 때 어떤 구조가 있으면  
거기에다 맞춰서

00:03:14.873 --> 00:03:18.821

이렇게 내용을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 
구조가 없단 말이에요.

00:03:18.846 --> 00:03:22.564

아까 얘기한 대로 형식은  
마치 어떻게 보면

00:03:22.589 --> 00:03:24.816

교통편이라고도  
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
00:03:24.841 --> 00:03:27.914

우리가 어떠한 목적지에  
다다르기 위해서

00:03:29.397 --> 00:03:31.812

여기에서 예를 들면  
부산을 간다고 할 때

00:03:31.837 --> 00:03:38.340

여기에서 버스 타고 역까지 가고  
역에서 기차 타고 그다음에 내려서

00:03:38.365 --> 00:03:40.622

부산에 도착해서  
그다음에 또 버스를 타고

00:03:40.647 --> 00:03:46.832

이렇게 행선지의 어떤 교통편  
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도 같은 거죠.

00:03:46.857 --> 00:03:49.640

내가 목적지에 쉽게  
도달할 수 있잖아요.

00:03:50.176 --> 00:03:53.194

그런데 이게 없으면  
헛갈린단 말이에요.

00:03:53.219 --> 00:03:58.544

아침에 우왕좌왕하다 보면 목적지에  
도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.

00:03:58.569 --> 00:04:02.155

그러니까 일기 쓰기에서도  
서론-본론-결론으로 쓴다.

00:04:02.180 --> 00:04:03.472

또 기승전결로 쓴다.

00:04:03.497 --> 00:04:06.416

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 
좀 더 쉬울 것 같아요.

00:04:06.441 --> 00:04:07.946

그런데 없어요.

00:04:08.287 --> 00:04:12.519

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구조를  
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

00:04:12.563 --> 00:04:14.809

오늘은 1단계 구조만 얘기를 할게요.

00:04:14.834 --> 00:04:22.757

뭐냐 하면 일단 일기 쓰기는 글감과  
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요.

00:04:22.782 --> 00:04:26.981

그러니까 일기 쓰기는 내용이 있고  
그다음에 소감을 쓰는 것이다.

00:04:27.006 --> 00:04:28.824

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

00:04:28.849 --> 00:04:34.117

보통 우리는 일기 쓰기를  
자기의 어떤 반성적인 사고를 하고

00:04:34.142 --> 00:04:37.942

이렇기 때문에 또 자기를 돌아보는  
어떤 표현의 장이기 때문에

00:04:37.967 --> 00:04:39.551

또 남이 보지 않기 때문에

00:04:39.576 --> 00:04:43.578

내 생각을 많이 표현하는 형식으로  
글을 쓰게 돼 있어요.

00:04:43.603 --> 00:04:46.991

그런데 문체는 글을 쓰기  
어려운 친구들은

00:04:47.016 --> 00:04:50.816

자기 소감이나 생각을 표현하기가  
쉽지 않거든요.

00:04:50.841 --> 00:04:58.975

또 자기의 소감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  
일기니까 남이 안 보니까 그렇겠지만

00:04:59.000 --> 00:05:01.912

내용을 확실하게 갖다 놓으면

00:05:01.937 --> 00:05:05.979

이거에 대해서 내가 내 소감을  
쓰기가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.

00:05:06.261 --> 00:05:07.286

이런 거하고 똑같아요.

00:05:07.311 --> 00:05:12.296

우리가 요리를 할 때 그냥  
냉장고 열고 여러 가지

00:05:12.321 --> 00:05:16.235

아무거나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 
생각하면 요리가 이상해지잖아요.

00:05:16.260 --> 00:05:19.794

그런데 신선한 재료가 있으면  
신선한 요리가 되잖아요.

00:05:19.818 --> 00:05:25.065

마찬가지로 일기를 쓸 때도  
소재를 굉장히 신선한 걸 가져다 놓고

00:05:25.090 --> 00:05:26.812

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

00:05:26.837 --> 00:05:31.664

그런데 우리 하루의 일과가  
매일매일 똑같으니까

00:05:31.689 --> 00:05:34.332

그 사실이 없으니까,  
내용이 없으니까

00:05:34.690 --> 00:05:38.251

굉장히 글쓰기가 어렵지 않느냐,  
이런 생각이 들어요.

00:05:38.276 --> 00:05:41.346

그래서 이 소재 자체를  
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

00:05:41.371 --> 00:05:45.820

그다음에 내용과 어떠한 소감이나  
구조를 가지고 쓰게 되면

00:05:45.845 --> 00:05:47.725

일기 쓰기가  
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.

00:05:47.750 --> 00:05:50.121

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.

00:05:50.904 --> 00:05:53.950

일단 일기는 2단계 구조라고  
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

00:05:53.975 --> 00:05:56.133

그래서 하나는 내용이다.

00:05:56.158 --> 00:05:59.903

내가 보고 듣고 겪은 경험  
이런 것들이죠.

00:05:59.928 --> 00:06:01.187

그게 글감이고요.

00:06:01.212 --> 00:06:07.656

또 다른 한쪽은 여기에 대해서  
내가 쓴 소감, 의견 이런 거 따위다

00:06:07.681 --> 00:06:09.283

이렇게 생각해 볼게요.

00:06:09.308 --> 00:06:11.711

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 
했던 부분들,

00:06:11.886 --> 00:06:15.024

1장에서 관찰을 통한  
글쓰기했던 부분을 가지고

00:06:15.049 --> 00:06:16.790

일기 쓰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.

00:06:16.815 --> 00:06:21.036

여러분이 어디를 가다가  
뭔가 꽃을 보고 그걸 관찰하는

00:06:21.061 --> 00:06:22.881

그런 관찰 일기를 쓸 수도 있잖아요.

00:06:22.906 --> 00:06:24.866

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 
한번 써볼게요.

00:06:24.891 --> 00:06:30.500

여기 보면 슈퍼맨이라는  
이런 표지가 하나 있어요.

00:06:30.525 --> 00:06:32.800

액션 코믹이라고 쓰여 있는데요.

00:06:32.825 --> 00:06:37.676

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 
이게 슈퍼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.

00:06:37.701 --> 00:06:40.781

그러면 우리가 1장 때  
어떻게 했나요?

00:06:40.806 --> 00:06:45.042

우리가 뭐든지 일단 보면 관찰하고  
묘사하는 습성을 들인다

00:06:45.067 --> 00:06:46.247

이렇게 얘기했잖아요.

00:06:46.272 --> 00:06:48.839

그래서 이 슈퍼맨을 보고,  
이 그림을 보고

00:06:48.864 --> 00:06:51.190

한번 묘사를 해 보는 거예요.

00:06:51.261 --> 00:06:58.258

묘사를 해 보면 슈퍼맨이  
자동차를 들어서 던지려고 하고 있고

00:06:58.283 --> 00:07:02.475

자동차는 앞부분이  
좀 깨져 있고 부서져 있고

00:07:02.500 --> 00:07:06.068

어떤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 
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

00:07:06.093 --> 00:07:10.248  
그래서 이렇게 그 표지 이야기를  
여러분이 쪽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.

00:07:10.273 --> 00:07:10.982  
왜?

00:07:11.007 --> 00:07:16.577  
여러분은 지금 이 슈퍼맨 잡지에 대한  
표지를 보고 글을 쓰는 거니까

00:07:16.681 --> 00:07:20.009  
이 표지를 글로 옮겨 온다는 거예요.

00:07:20.034 --> 00:07:21.755  
왜?  
내용이니까.

00:07:21.780 --> 00:07:24.002  
이 그림 자체는 글이 아니잖아요.

00:07:24.027 --> 00:07:26.443  
그러니까 내용으로써 기능을  
할 수가 없어요.

00:07:26.468 --> 00:07:29.873  
그래서 이 그림을 글 정보로  
변환을 시켜 놓는다.

00:07:29.898 --> 00:07:32.185  
그러면 이게 내용이 된다.

00:07:32.210 --> 00:07:34.784  
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을  
잘 갖다 놓은 거예요.

00:07:34.809 --> 00:07:36.703  
내용을 잘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.

00:07:36.728 --> 00:07:39.759  
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 
여러분이 글을 쓴다.

00:07:39.784 --> 00:07:41.822  
뭐를 쓴다?  
소감을 쓴다.

00:07:42.238 --> 00:07:49.974  
이 그림을 보니까 슈퍼맨이  
정말 대단한 위력을 가진 사람이다,

00:07:50.712 --> 00:07:53.605  
슈퍼맨이 저렇게 하니까 막 사람이  
놀라는 장면이 참 재미있다.

00:07:53.630 --> 00:07:57.078  
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소감을  
한 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.

00:07:57.103 --> 00:08:03.221

그러면 내용과 소감 해서  
2단계 구조로 글이 완성돼요.

00:08:03.246 --> 00:08:07.575

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 
더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어요.

00:08:07.600 --> 00:08:09.583

우리가 2단계 구조라고 그랬지만

00:08:09.608 --> 00:08:12.420

여기에서 어떤 정보들이  
좀 더 들어가면 좋아요.

00:08:12.465 --> 00:08:17.352

어떤 정보냐 하면 예를 들면  
여러분이 이 그림을

00:08:17.377 --> 00:08:19.228

지금 어디에서 봤어요.

00:08:19.729 --> 00:08:24.114

일기에는 그냥 자유롭게 쓰는 거니까  
그런 게 안 들어가겠지만

00:08:24.139 --> 00:08:28.968

여러분이 만약에 이 슈퍼맨이라는  
그림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한다면

00:08:28.993 --> 00:08:31.408

그런 정보들이 사실 들어가야 해요.

00:08:31.433 --> 00:08:35.962

그러면 여러분이 이 그림을  
오늘 인터넷에서 봤다고 한다면

00:08:35.987 --> 00:08:36.725

그렇게 써야 해요.

00:08:36.750 --> 00:08:40.602

이 그림은 예를 들면 어떤 표지를  
이렇게 그대로 글로 표현해 놓고

00:08:40.627 --> 00:08:43.320

이 그림은 내가 오늘 인터넷에서  
본 내용이다.

00:08:43.345 --> 00:08:44.513

이렇게 한 줄 쓴다고요.

00:08:44.538 --> 00:08:48.224

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출처,  
배경 정보가 돼요.

00:08:48.249 --> 00:08:50.151

그다음에 밑에 소감을 쓰면

00:08:50.176 --> 00:08:54.178

사실은 우리가 크게는 내용과

소감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

00:08:54.203 --> 00:08:57.787

사실은 그 안에 배경 정보까지 들어가면 더 좋은 글이 돼요.

00:08:57.812 --> 00:09:03.315

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었어요.

00:09:04.133 --> 00:09:04.903

이게 만화책이죠.

00:09:04.928 --> 00:09:10.795

만화책 표지인데 이게 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냐 하면

00:09:10.959 --> 00:09:17.908

이 그림이 슈퍼맨 만화의 초기 작품이었대요.

00:09:17.933 --> 00:09:21.110

제일 처음으로 나온 첫 본이었다는 거죠.

00:09:21.135 --> 00:09:24.821

그래서 1930년대에 이게 나왔다는데요.

00:09:24.846 --> 00:09:27.152

처음에 나온 첫 권,

00:09:27.157 --> 00:09:30.800

슈퍼맨 만화책 첫 번째 펴낸 이 작품이

00:09:30.825 --> 00:09:34.625

24억인가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팔렸다는 거예요.

00:09:34.650 --> 00:09:40.275

그러면 이런 정보들도 내용 속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.

00:09:40.300 --> 00:09:45.250

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그 표지가, 그 디자인의 그 책이

00:09:45.275 --> 00:09:46.966

이렇게 이십몇억에 팔렸다.

00:09:46.991 --> 00:09:50.384

이런 내용을 더 집어넣으면 내용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.

00:09:50.409 --> 00:09:52.933

그래서 풍성한 내용이 나오고

00:09:52.958 --> 00:09:55.838

그다음에 이 그림을 나는 오늘 어디에서 봤다는 게 들어가고

00:09:55.863 --> 00:09:57.886  
그다음에 너무 재미있다.

00:09:57.911 --> 00:10:01.195  
이런 만화책 한 권이 무려  
수십억을 받을 수 있다니

00:10:01.220 --> 00:10:06.440  
나도 다른 유명한 만화책의  
첫 본이 나오면 한번 모아봐야겠다

00:10:06.465 --> 00:10:07.985  
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

00:10:08.010 --> 00:10:10.932  
그러면 바로 글의 구조가  
완성되는 것이죠.

00:10:10.957 --> 00:10:13.925  
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 
내용을 먼저 쓰고

00:10:13.950 --> 00:10:16.009  
그다음에 배경이랑 소감을 썼잖아요.

00:10:16.034 --> 00:10:19.315  
그런데 여러분은 보통  
그렇게 글을 안 쓰고

00:10:19.340 --> 00:10:21.190  
배경을 먼저 쓰는 경우가 있어요.

00:10:21.215 --> 00:10:25.099  
그래서 나는 오늘 우연히  
인터넷을 봤는데

00:10:25.124 --> 00:10:28.362  
거기에서 재미있는 그림  
한 장을 봤다.

00:10:28.387 --> 00:10:35.014  
그런데 이 그림은 슈퍼맨  
처음에 나온 초판본이었다.

00:10:35.039 --> 00:10:39.030  
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 
그 내용을 이렇게 쪽 묘사해 주고

00:10:39.055 --> 00:10:41.368  
그다음에 여러분의 느낌을 쓰게 되면

00:10:41.393 --> 00:10:45.416  
바로 내용과 소감 형태의  
일기가 된다는 것이죠.

00:10:45.728 --> 00:10:50.555  
여러분이 친구 생일을 맞이해서  
갔다 왔다고 글을 쓸 때도

00:10:50.580 --> 00:10:52.003

마찬가지예요.

00:10:52.281 --> 00:10:57.110  
여러분은 그냥 글을 쪽 쓰지만  
사실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

00:10:57.135 --> 00:11:02.122  
다 내용과 또 어떤 배경과  
이런 소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

00:11:02.147 --> 00:11:03.896  
예를 들면 일기 쓸 때  
우리가 어떻게 해요?

00:11:03.921 --> 00:11:06.763  
누구 생일이었니?  
그다음에 그 친구 집은 어디니?

00:11:06.788 --> 00:11:09.793  
또 몇 명이 모였니?  
또 무슨 음식을 차렸니?

00:11:09.818 --> 00:11:12.492  
또 친구들은 선물을  
뭐 사 가지고 왔대?

00:11:12.517 --> 00:11:15.686  
뭐 타고 놀았니?  
그다음에 너 재미있었니?

00:11:15.711 --> 00:11:17.710  
네 생일 때는 뭐 해 줄까?

00:11:17.735 --> 00:11:19.784  
이렇게 엄마가 던지는 물음에 대해서

00:11:19.809 --> 00:11:22.958  
혹은 스스로 던지는 물음에 대해서  
쓰는 것이

00:11:22.983 --> 00:11:25.061  
친구 생일이라는 일기 쓰기인데

00:11:25.086 --> 00:11:29.426  
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 
소감이 되는 게 재미있었니?

00:11:29.451 --> 00:11:31.629  
이거하고 너 생일 때  
어떻게 하면 좋겠니?

00:11:31.654 --> 00:11:33.137  
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.

00:11:33.162 --> 00:11:36.554  
나머지는 다 어떠한 사실이나  
그 생일잔치 때

00:11:36.594 --> 00:11:37.804  
내가 어떻게 가게 됐는지

00:11:37.829 --> 00:11:40.165

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 
이렇게 구성이 돼요.

00:11:40.190 --> 00:11:43.340

그래서 생일잔치에 대한 내용

00:11:44.237 --> 00:11:49.012

아까 그런 구조로 내용을 먼저 쓴다면  
나는 오늘 누구 생일잔치에 갔다.

00:11:49.037 --> 00:11:51.750

그래서 그의 집은 어디였다  
이렇게 하고

00:11:51.775 --> 00:11:53.655

갔더니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.

00:11:53.680 --> 00:11:55.580

또 친구들은 이런 선물을 사 왔다.

00:11:55.866 --> 00:11:57.524

그다음에 우리는 먹고  
재미있게 놀았다.

00:11:57.549 --> 00:12:00.607

이제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 
거기에다 여러분이

00:12:00.632 --> 00:12:01.936

소감 한 줄을 이렇게.

00:12:01.961 --> 00:12:04.178

그래서 나는 너무 재미있게 놀아서  
내 생일 때도

00:12:04.203 --> 00:12:06.738

꼭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 
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.

00:12:06.763 --> 00:12:13.496

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 
뭐냐 하면 일기를 잘 쓰기 위해서는

00:12:13.521 --> 00:12:15.947

명확한 내용을  
가져다 놓고 해야 해요.

00:12:15.972 --> 00:12:17.643

소재를 잘 찾아야 해요.

00:12:17.668 --> 00:12:21.468

그런데 소재가 없으면 여러분이  
생각만으로써 글을 쓰게 되는데

00:12:21.493 --> 00:12:24.788

생각이나 소감만으로 글을 쓰는 데는  
상당히 어려워요.

00:12:25.238 --> 00:12:28.643

다음에는 일기를 잘 쓰기 위한

방법을 좀 알아볼게요.

00:12:28.668 --> 00:12:32.174

일기를 일단 여러분이  
솔직히 써야 해요.

00:12:32.199 --> 00:12:35.384

일기는 사실 자기만 보고  
남에게 보여주지 않잖아요.

00:12:35.409 --> 00:12:37.412

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 
다 쓸 수 있어요.

00:12:37.437 --> 00:12:38.742

그런 얘기를 써 놓은 다음에

00:12:38.767 --> 00:12:42.033

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 
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거든요.

00:12:42.058 --> 00:12:44.399

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겪은 얘기  
솔직히 쓴다.

00:12:44.424 --> 00:12:48.338

그다음에 일기 자체는 기록으로서  
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

00:12:48.880 --> 00:12:52.323

자기가 기분 나빴던 일,  
이런 일 빼 놓지 않고 기록한다.

00:12:52.348 --> 00:12:54.149

이런 기록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.

00:12:54.174 --> 00:12:56.668

그다음에 일기 쓸 때  
또 가장 중요한 것은

00:12:56.693 --> 00:13:00.756

아까 얘기한 대로 글감, 내용을  
가져다 놓고 한다고요.

00:13:00.781 --> 00:13:02.164

그런데 그 내용은 뭐예요?

00:13:02.189 --> 00:13:04.764

오늘 일어난 일 중에  
가장 기억에 남는 거,

00:13:04.789 --> 00:13:07.568

가장 재미있었던 일,  
가장 슬펐던 일,

00:13:07.612 --> 00:13:09.660

가장 인상적인 것들, 이런 것들.

00:13:09.685 --> 00:13:12.417

여러분이 오늘 겪은 일 중에  
뭔가 특이한 일을 갖다 놔야 해요.

00:13:12.442 --> 00:13:15.810

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 
어떻게 할 것인지.

00:13:15.835 --> 00:13:20.007

그걸 어떻게 하나 하면  
소재를 찾아야 해요.

00:13:20.032 --> 00:13:23.832

그래서 내가 겪은 일만 가지고  
일기를 쓰지 말고 다양한 소재.

00:13:23.857 --> 00:13:27.909

예를 들면 일기 쓸 거리가 없으면  
책이라도 한 권 보고

00:13:27.934 --> 00:13:30.577

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 
가져다 놓고 글을 쓰고요.

00:13:30.602 --> 00:13:35.622

또 일기라는 게 꼭 자기 생각을  
멋있게 표현하는 건가요?

00:13:35.647 --> 00:13:38.330

그냥 편지 쓰기 또 메모하기.

00:13:38.355 --> 00:13:41.197

이런 것도 좋은 일기의  
소재가 될 수 있어요.

00:13:41.222 --> 00:13:44.156

또 위인전을 읽고  
나는 이런 거 본받았으면 좋겠다.

00:13:44.181 --> 00:13:46.549

이런 것도 참 재미있는 글이 되고요.

00:13:46.574 --> 00:13:50.686

그래서 일기 쓰기를 잘하려면  
소재를 다양화해야 해요.

00:13:50.711 --> 00:13:52.899

예를 들면 그림 일기도 있고  
독서 일기도 있고

00:13:52.924 --> 00:13:54.387

관찰 일기도 있고요.

00:13:54.412 --> 00:13:56.450

메모 일기도 일기라고  
볼 수도 있고요.

00:13:56.475 --> 00:13:59.020

또 상상 나래를 펴는 일기도 되고요.

00:13:59.045 --> 00:14:02.145

또 여행 갔다 와서 쓰는  
일기도 되고요.

00:14:02.170 --> 00:14:03.950  
정말 이 소재를 다양하게 하는 게

00:14:03.975 --> 00:14:06.510  
일기 쓸 때 가장 중요한  
일이 아닌가 하고요.

00:14:06.535 --> 00:14:13.085  
또한 일기 쓰기를 통해서  
여러분이 얻는 효과 중에 하나는

00:14:13.110 --> 00:14:14.791  
여러분이 어떤 반성을 통해서

00:14:14.816 --> 00:14:18.616  
내 삶을 굉장히 더 나아지게  
할 수 있다는 거예요.

00:14:18.641 --> 00:14:21.445  
그러니까 나의 느낌이나 소감을

00:14:21.470 --> 00:14:23.717  
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 
좋은 것 같아요.

00:14:23.853 --> 00:14:26.445  
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 
일어난 일들.

00:14:26.470 --> 00:14:28.367  
여러분, 학창 시절에  
일어난 일들이 뭐예요?

00:14:28.392 --> 00:14:30.862  
친구에 관한 얘기가  
많이 있을 것 같아요.

00:14:30.887 --> 00:14:34.421  
그러면 친구하고 있었던 상황을  
자세히 기술하거나

00:14:34.446 --> 00:14:36.904  
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 
한번 따져보고

00:14:36.929 --> 00:14:40.843  
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  
말씀드리고 한번 조언을 구해 보고

00:14:40.868 --> 00:14:44.238  
이러한 행위들도 일기 쓰기에  
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.

00:14:44.263 --> 00:14:48.891  
또 부모님하고 갈등을 겪은 것도  
그것도 일기의 좋은 소재예요.

00:14:48.916 --> 00:14:53.315  
부모님하고 어떻게 갈등이  
없을 수 있겠어요?

00:14:53.340 --> 00:14:56.639

엄마, 아빠가 시키지 않은 일을 가끔 할 때도 있잖아요.

00:14:56.664 --> 00:14:58.372

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도

00:14:58.397 --> 00:15:01.832

그대로 혼난 것도 기록으로서 가치도 있고요.

00:15:01.857 --> 00:15:05.905

또 왜 혼났는지 나중에 한번 자기가 이렇게 보면

00:15:05.930 --> 00:15:08.405

아, 그랬었구나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을 거예요.

00:15:08.430 --> 00:15:10.657

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

00:15:10.682 --> 00:15:12.678

일기 쓰기의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.

00:15:12.703 --> 00:15:17.740

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종합하자면 일기를 쓸 때는 내용을 좀 명확히,

00:15:17.765 --> 00:15:19.784

글감을 명확히 하자는 거고요.

00:15:19.809 --> 00:15:23.593

글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일어난 일만 가지고

00:15:23.618 --> 00:15:26.411

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, 특이한 일이 없으니까.

00:15:26.436 --> 00:15:28.137

그럴 때는 소재를 찾는다.

00:15:28.162 --> 00:15:30.051

그래서 아까 소재에 대한 다양한 것들.

00:15:30.076 --> 00:15:32.333

책임지 아니면 영화를 봤는지

00:15:32.358 --> 00:15:36.373

아니면 떠오르는 어떤 메모를 기록한다든가

00:15:36.398 --> 00:15:38.556

이런 소재를 다양화하고

00:15:38.581 --> 00:15:40.937

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솔직히 기록한다.

00:15:40.962 --> 00:15:45.282

솔직히 기록해야만 내가 더  
나은 나로 발전할 수 있다.

00:15:45.307 --> 00:15:47.306

어떤 것도 소재가 될 수 있다.

00:15:47.331 --> 00:15:51.800

선생님과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,  
이런 것도 솔직히 표현하세요.

00:15:51.825 --> 00:15:54.111

선생님이 보는 거니까  
이건 쓰기가 그렇다

00:15:54.136 --> 00:15:55.458

그런 게 어디 있어요.

00:15:55.483 --> 00:15:59.283

일기는 그냥 여러분 있는 것들  
다 털어놓는 그런 거예요.

00:15:59.466 --> 00:16:02.083

선생님이 그걸 봤다고 해서  
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.

00:16:02.108 --> 00:16:05.696

그래서 소재를 다양하게 하고  
솔직하게 쓰는 것들

00:16:05.721 --> 00:16:09.545

이런 것들이 일기 쓰기에서  
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.

00:16:09.770 --> 00:16:12.482

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